

경쟁력 혁신을 위하여 매진

한국중공업(주)

연

해는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발전설비 공급가격 및 공기 파괴현상의 가속화, 국내 발전설비 발주물량의 감소, 금년부터 단행되는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의 해제와 97년부터 발효되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내 발전설비 시장의 개방에 따라, 우리 회사는 국내 재벌기업은 물론 세계 유수의 발전설비 메이커들과 생존을 건 경쟁을 벌여야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발전설비 제조분야의 경영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느 해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한해가 되겠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 회사는 경쟁상대를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의 수주목표 2조5천억원 가운데 1조원 가량의 물량을 해외에서 선진의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주해야 한다.

세계화 전략

우리 회사는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

어 세계화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세계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 Global Market 강화 등 영업활동의 세계화 △ 저가품 생산 시설의 해외이전 및 신규확보를 통한 생산활동의 세계화 △ 세계 최고의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품질활동의 세계화를 통하여 한중인 모두가 각자 처한 위치와 분야에서 세계화의 대열에 적극 참여한다.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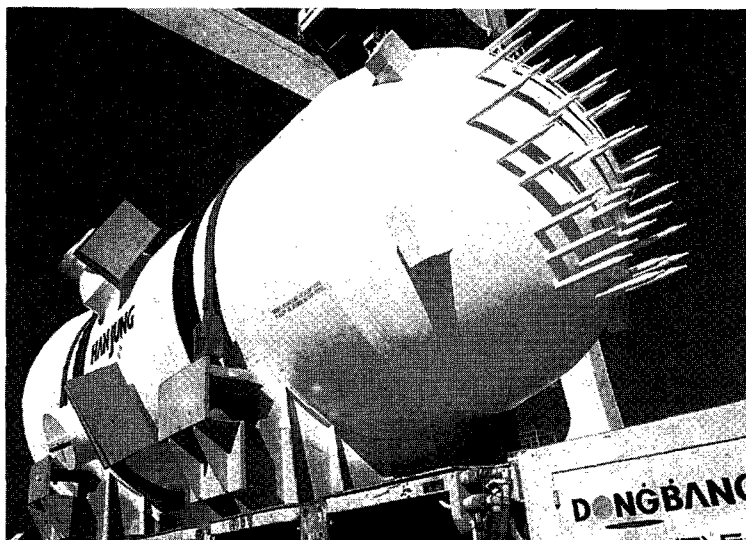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원자력 증기발전기의 튜브시트/튜브의 접합부위의 응력 부식과 개선 등 3건, 터빈발전기의 이상진동 진단기술 개발 등 6건, 소재분야에서 상 변태를 고려한 열처리공정 해석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술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증기터빈 Stage 성능 해석, 원자로 내부구조물(RVI) 튜브의 폭발화관 기술개발, 핵융합 및 Hoop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신기술

분야에 참여한다.

또한 해외에서 제작중인 올진 3·4호기 RVI 및 CEDM의 설계 및 제작에 당사가 참여함으로써, 영광 5·6호기부터는 원자로 내부구조물(RVI) 및 제어봉 구동장치(CEDM)를 국산화할 예정이며,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고 용량을 1,000MWe에서 1,300MWe로 용량을 증대시킨 차세대원자로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고리 1호기의 교체 증기발전기(S/G)의 기본설계의 참여 및 기존 S/G의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S/G의 설계를 차별화한다.

품질활동

올해의 품질활동은 △ 품질보증 능력의 향상 △ 품질비용 및 검사 Lead Time의 단축 △ 품질경영 100선유지 △ ASME 및 ISO 등 중요기관의 감사수감을 통한 품질경영체제의 정착 △ 시스템 및 절차서 등의 표준화 △ 품질시스템의 전산화 및 Rotor류의 품질평가기술 및 ISI 검사기술의 개발



대북경수로 지원시 제공될 원자로와 똑같은 울진 4호기 원자로가 한국중공업(주) 창원공장에서 제작된 후 출하되고 있다.

△ 검사설비 교정기술의 개발 및 UT 탐촉자 교정기술 등 품질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품질활동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경영혁신

우리 회사는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총체적인 경쟁력, 즉 가격·납기·품질 등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경영혁신운동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 마인드 고양을 위한 고정관념 타파 활동의 전개, 원가절감과 납기단축,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한 즉시 실천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회사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본부를 기존의 단순한 사업관리조직에서 영업·사업관리·설계·생산 및 품질보증 조직을 한데 묶어 운영하도록 과감한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현 여건하에서 우리 회사의 강점인 품질 및 납기가 보장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96 사업계획

현재 우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기기 설계를 포함한 기자재 공급자로서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월성 2·3·4호기, 영광 5·6호기, 고리 1호기 S/G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형인 울진 3·4

호기는 우리 회사가 기전설치 주계약자로서 건설을 진행 중이다.

또한 울진 5·6호기 및 북한 경수로 원전 1·2호기의 주기기 공급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1. 영광 3·4호기 사업

영광 3·4호기 사업은 95년 3월 31일에 3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데 이어서, 4호기는 95년 12월 23일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96년 1월초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한국표준형 원자로 발전소의 참조발전소인 영광 3·4호기 사업의 추진으로 축적된 경험을 취합, 기술경험집을 발간하여 후속기 업무 추진 및 후배 양성교재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2. 울진 3·4호기 사업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 3·4호기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속에 95년도에 3·4호기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자재를 국산화하여 현장으로 출하함에 따라, 96년도에는 전체 기전설치 공정의 약 50% 정도를 진행시킬 예정에 있으며, 4백만 시간 무장애 목표도 무리없이 달성코자 한다.

95년도에는 CANDU형 원자로의 제작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함으로써 우리 회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수로 및 중수로를 제작한 회사가 되

었다.

3. 월성 2·3·4호기 사업

월성 2·3·4호기 사업은 잔여분 기자재가 공장제작되어 출하에 더욱 박차를 기할 것이며, 나아가서 동일한 CANDU형의 해외수출을 AECL과의 공동 보조로 개발할 예정이다.

4. 영광 5·6호기 사업

95년도에 한국전력공사와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영광 5·6호기 사업은 새로 국산화가 추진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제어봉 구동장치에 한치의 오차나 결함도 없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시제품 및 완벽한 생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보조기기의 납품이 시작되는 금년 봄에는 현장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5. 울진 5·6호기 사업

95년도에 입찰 안내서를 접수하여 응찰, 협상중인 울진 5·6호기 신규사업은 금년초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더 나은 기술을 갖는 원자력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사업단계 준비업무와 주단품 소재 제작에 착수하였다.

6. 북한 경수로사업과 해외사업

95년말에 견적제외요청서를 접수한 북한 경수로사업은 북한과 KEDO간 공급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기합의된 일정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와 Long



한국중공업(주)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한 중수로형 원자로(CALANDRIA)

Lead Item의 조기 착수를 협의하여 소재의 주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술에 우리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7. 원전보수사업과 핵융합사업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밑바탕으로 해외 원전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부터 원전 수주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 또한 올해의 빼놓을 수 없는 사업목표이다.

한편으로 기 준공되어 운영 중인 원전의 보수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 수행과 T/G Rotor 교체 작업 추진 및 영광지역을 포함한 타 보수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부터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융합연구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모든 원자력 관련

8. 기술훈련/개발업무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술훈련/개발업무도 적극 추진하여 3단계 계통설계 기술훈련을 추진코자 하며, 원자력의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전자/광 Filing 시스템을 활용한 문서통합 운영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계획은 발전설비 개방에 따른 우리 회사의 경쟁력 확보의 일환이며, 최고 품질, 최단 납기, 최저가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는 한중인의 노력 속에 하나의 미제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